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49

에베소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에 베 소 서

Ephesians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0)

ἀνακεφαλαιώσασθαι τὰ πάντα ἐν τῷ Χριστῷ, τὰ ἐπὶ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καὶ τὰ ἐπὶ τῆς γῆς· ἐν αὐτῷ.

에베소서 차례

에베소서 서론	〈15제〉	337
제 1 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다	〈26제〉	343
제 2 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20제〉	351
제 3 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經綸)이 드러나다	〈18제〉	357
제 4 장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와 거듭난 성도의 삶	〈21제〉	363
제 5 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22제〉	371
제 6 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4제〉	379

에베소서 특별 자료 차례

제 1 장 〈본장의 요절〉	350
제 3 장 〈연구 자료〉 하나님의 예정(豫定)	362
제 4 장 〈연구 자료〉 초대 교회의 사역자들	370
제 5 장 〈화보 자료〉 아데미(Artemis) 신전의 복원도	378
제 6 장 〈본장의 요절〉	384

에베소서 서론

1. ㉠ 본서신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에는 이 서신의 저자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밝혀져 있다(1:1;3:1).
- (2) 또한 본서신을 기술(記述) 하는 방식이나 사용된 어휘와 주제, 그밖의 신학적 접근 방법을 보아 바울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 (3) 그 뿐 아니라 교회사가(教會史家)인 유세비우스(Eusebius, A. D. 260-339), 초대 교부들인 오리젠(Origen, A. D. 210-250),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Alexandria of Clement, A. D. ?-215), 터툴리안(Tertullian, A. D. 160-230), 이레니우스(Irenaeus, A. D. 140-200), 폴리갑(Polycarp, A. D. 69-155), 이그나티우스(Ignatius)도 본서신을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하고 있다.
- (4) 이외에도 신약의 정경 문제를 최초로 다루었던 문서인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fragment)이나 사도 교부 문서들인 헤르마스의 목자(the Shepherd of Hermas), 바나바의 서신(the Epistles of Barnabas), 12사도 교훈집(Didache)에서도 본서신의 바울 저작을 인정하고 있다.
- (5) 한편 19세기 후반부터 베테(De Wette), 바우어(Baur) 등은 본서신이 다른 바울 서신처럼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친밀한 의사가 없는 점, 문체, 감정 표현, 목적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바울의 색채가 아니며, 그의 중심 교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以信稱義) 교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들을 내세워 본서신의 바울 저작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 (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 몇 가지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첫째, 본서신은 본래 회람용(回覽用)으로서 에베소 교회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쓰여졌기 때문에 특정 교회의 인물에 대한 인사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 본서신이 모든 서신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의 내용을 기술할 만한 사람으로서 바울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을 추정할 수 없으며, 셋째, 더구나 본서신의 주요 내용에는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핵심 교리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1:13;2:5-9;3:12).
- (7)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본서신의 저자가 사도 바울임을 이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2. ㉠ 본서신의 수신지는 어디인가?

- ㉠ (1) 본서신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로 보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 (2) 그 이유는 본서신의 수신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문구인 1:1의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귀절이 헬라어 사본들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3) 실제로 체스터 비티 파피리 사본(Chester Beatty Papyri Codex), 시나이 사본(Sinaiticus Codex), 바티칸 사본(Vaticanus Codex) 등 고대의 유명한 사본들에는 이 귀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 (4) 한편 이단자 마르시온(Marcion)은 골 4:16을 근거하여 본서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교회사가인 하르낙(Adolf von Harnack)도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 후대에 와서 계시록에 게재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악평 때문에(제 3:14

-22) 이 제목이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 (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본서신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다 (Origen, Basil Goodspeed, Mackay).
- (6) 둘째는,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 본서신이 라오디게아, 골로새 지방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라는 견해이다 (Abbott, Scott).
- (7) 그러나 본서신에 명시된 에베소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삭제해 버린 위의 두 견해는 바울이 그의 선교 사역의 절정기를 그곳에서 보냈고 많은 정열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를 위한 편지라는 점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행 19:8-10; 20:17-35).
- (8) 세번째 주장은 본서신이 회람 서신(回覽書信)으로서 에베소가 아닌 여러 교회들에게 공동으로 순회되며 읽혀졌다는 것이다.
- (9) 네번째 주장은 세번째 주장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오늘날 널리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서신이 본래는 그 지방의 중심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으나 비단 이 교회 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쓰여졌다는 것이다.
- (10) 결론적으로 본서신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보낸 것이 확실하며, 또한 필요에 의해 다른 교회들도 본서신을 접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 본서신이 기록된 시기와 장소에 대해 설명하라.

㉠ (1) 본서신은 사도 바울이 A. D. 62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기록하였다.

- (2)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3:1), '주 안에서 갇힌 내가' (4:1), '쇠사슬에 매인 사신' (6:20) 이라고 기록함으로써 그가 본서신을 집필할 때의 정황이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복역 중임을 명백히 보여 준다.
- (3) 한편 사도 바울이 옥중에 수감된 사실을 추적해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통틀어 세 군데나 오는데 빌립보 (행 16:19-34), 가이사라 (행 25장), 로마 (행 28:16) 등이다.
- (4) 이 가운데 빌립보는 단 하루 동안 감금되었으므로 본서신의 기록 장소로 볼 수 없고, 가이사라는 2년 이상이나 수감된 곳이지만 기록 장소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그의 옥중 서신에는 조만간에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본서신은 로마 옥중에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5) 즉 바울은 A. D. 61년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여 2년 동안 시위대와 가까운 셋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내면서 본서신을 집필했다 (참조, 행 28:30; 빌 1:13).

4. ㉠ 본서신이 회람 서신(回覽書信)으로 사용되었다는 견해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신은 다른 서신들보다 회람 서신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Beza, Grotius, Usher 등).
- (2) 이처럼 사도들의 권면과 서신을 주고 받거나 돌려 가면서 읽는 것은 초대 교회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 본서신 역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3) 무엇보다도 바울의 서신 중에 본서신만큼 비개인적인 편지가 없다는 것이다. 즉 본서신의 표현 중에 많은 부분에서 바울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암시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참조, 1:15; 3:2; 4:21, 22).
- (4) 더구나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지 가운데 가장 많은 수고와 열심을 쏟았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참조, 행 20:19-21) 그가 다른 서신들에서 보인 목회자적 관심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언급과 문안 등이 본서신에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참조, 고전 1:45; 갈 1:8; 빌 1:20, 30; 살전 1:5).

- (5)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본서신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로마령(領)에 속한 아시아 지방의 몇몇 교회에서 돌려 가며 읽혀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6) 이처럼 그 당시 회람식으로 사용하던 서신류의 기록자들은 편지의 서두 부분에 빈 칸을 두어 그 사본의 전달자로 하여금 보내는 지방의 제목을 써 넣게 하였다(Beza, Usher).
- (7) 특별히 본서신의 제목이 에베소 교회라고 명명(命名)되어진 것은 이 지방의 교회가 당시 기독교 공동 사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으로서 바울은 우선적으로 이 교회의 이름으로 본서신을 집필하였던 것이다.

5. **㉠** 본서신의 수신자인 B. C. 11세기에 건설된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 ㉠** (1)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카이스테르(Chyster) 강 입구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다.
- (2) 최초의 거주인은 카리아인(Carians), 레레기인(Leleges)이었으나 B. C. 1087년 안드로클루스(Androclus)가 이들을 추방하고 명실 상부한 에베소의 창설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 (3) 그 후 에베소는 B. C. 560년경 크로수스(Croesus)에 의해 최초의 침략을 받고 B. C. 54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Cyrus) 왕에게 정복되고 B. C. 334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마케도니아 제국으로 합병된 후, B. C. 190년 이후 로마의 통치를 받아 왔다.
- (4) 에베소에는 헬라 신화의 영향으로 모성신(母性神) 성격이 강한 아르테미스(Arthemis) 신전(개역 성경, 아데미)이 있어 그것에 대한 숭배가 성행하였으며(행 19:27, 28), 경기장, 원형 극장, 시민 광장 등의 공동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6. **㉠** 본서신의 저자인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 ㉠** (1)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사역의 상당 기간 동안 일했던 곳이다.
- (2) 바울은 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곳을 들려 얼마 동안 전도하다가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 두고 떠났다(행 18:21).
- (3) 그 후 바울은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이곳을 들려 회당에서 3개월(행 19:8, 9)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최소한 2년 이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참조, 행 19:9, 10; 20:31).
- (4)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무리들과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합세하여 일으킨 큰 소요와 충돌을 겪어야만 했다(행 19:23, 24).
- (5)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밀레노의 설교에서 그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다(행 20:17-21).

7. **㉠** 본서신은 어떤 점에서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구별되는가?

- ㉠** (1) 본서신은 여러 면에서 다른 바울 서신들과 상이(相異)한 점을 지니고 있다.
- (2) 첫째는, 바울의 사도적 특권(3:2-13)과 그 결과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3:1; 4:1; 6:20) 및 편지의 전달자인 두기교에 관한 언급(6:21)을 제외하고는 다른 서신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인에 대한 언급이나, 문안, 회고담 같은 것들이 본서신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3) 둘째는, 대개의 바울 서신들은 특정한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것인데 반해 본서신에는 저작 동기나 본서신이 다루어야 할 특별한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 (4) 즉 본서신은 편지를 쓰는 대상이 되는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일반적인 주제를 서술해 나가고 있다.
- (5) 셋째는, 본서신에는 교회에 관한 교리들이 많이 들어 있지만 다른 서신들처럼 창조적이고 새로운 사상을 다루지 않고 기존의 믿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8. **㉠** 본서신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 ㉠** (1) 본서신은 **㉠**7에서 언급한 대로 구체적인 저작 동기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신 전체에는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로 통일됨을 지향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음이 나타나 있다.
- (2) 더구나 본서신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를 위한 회람용으로 기록된 점을 감안할 때 먼저 바울이 흩어진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 (3)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되었음을 초대 교회의 신앙인들에게 알려 줄 목적으로 본서신을 기록하였던 것이다.

9. **㉠** 본서신의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 ㉠** (1) 본서신이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유의 통일’이다(1:10; 2:13-16; 4:4-6).
- (2) 이처럼 바울이 만물의 통일을 말하고자 한 이유는 그 시대의 헬라와 유대 사상에 선과 악, 영과 영과의 대립과 분리 사상이 편만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 (3)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분리 사상은 그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분열되고 부조화된 사상을 갖게 만들었다.
- (4) 그러므로 바울은 본서신에서 만물의 부조화와 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해소되고 궁극적인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0. **㉠** 본서신의 핵심 사상이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통일’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는가?

- ㉠** (1)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사상에 도달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 (2) 우선 내면적인 요인으로서 골로새서에서 생생하게 표명되어진 ‘그리스도의 충만성’(充滿性)이라는 사상의 결과물 들 수 있다.
- (3) 즉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분(골 1:19)이라면 당연히 모든 인류와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 (4) 또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바울이 로마 제국의 위대한 통일을 목격한 사실을 들 수 있다.
- (5)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당시의 여러 민족과 국가와 인종들이 로마라는 이름하에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될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11. **㉠** 본서신과 골로새서와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내용 전개와 어휘 표현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도표화하라.

㉠	유사한 내용 및 표현	에 베 소 서	골 로 새 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속	1:7	1:14
	서두의 문안	1:15-19	1:3-12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충만	1:23; 3:19; 4:13	1:19; 2:9
	하나님 혹은 그의 백성으로부터 떠남	2:12; 4:18	1:21
	복음의 비밀을 말은 사도의 직분	3:1-13	1:23-29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힘	3:17	2:7
	서로 용납함	4:2	3:13
	그리스도의 지체, 연합	4:16	2:19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4:22, 23	3:9, 10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4:32	3:13
너희를 용서하듯이		
탐심을 우상 숭배로 규정함	5:5	3:5
세월을 아끼라	5:16	4:5
노래와 찬양을 통한 감사의 표현	5:19	3:16
남편과 아내	5:22, 23	3:18, 19
부모와 자녀	6:1-4	3:20, 21
종과 주인	6:5-9	3:22-25

12. ㉠ 본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서신에서 특히 강조된 내용으로는 첫째, 하나님의 선택 (election) 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택하셔서 양자됨 (1:5) 과 죄 용서 (1:7), 성령의 인침 (1:13) 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 (2) 둘째는, 화해 (reconciliation) 를 강조하여 죄로 막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과 약속으로 나누어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간격을 메꾸어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 (2장) 는 점이다.
- (3) 셋째는, 교회 (church) 에 관한 강조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으로 하나가 되어진다 (3:1-4:1-16) 는 것이다.
- (4) 넷째는, 위의 세 가지 교리의 적용으로 그리스도인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13. ㉠ 본서신이 모든 서신서 가운데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한가?

- ㉠ (1) 본서신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 가운데서 교리적 진술이 가장 완벽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 (2) 즉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교리적 내용이(참조, 롬 8:29; 고전 12:12, 27; 골 1:18) 본서신에는 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전개되어 있다(1:3-12; 2:11-18).
- (3) 특히 교회론에 관한 진술은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가장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참조, 1:20-23; 2:19-22; 4:4-12).
- (4) 그러므로 학자들은 서신서 중에서 본서신을 가리켜 '서신 중의 여왕', '가장 영적인 저술'(Colerige),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대서사시'(Goodspeed)라고 말하고 있다.

14. ㉠ 기록된 장소를 근거로 하여 불리어지고 있는 본서신의 또 다른 명칭은 무엇인가?

- ㉠ (1) 본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收監)되어 있을 때 기록되었다 하여 옥중 서신(獄中書信)이라 불리어지고 있다.
- (2) 옥중 서신에는 본서신 외에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포함되어 있다.
- (3) 이 서신들을 옥중 서신으로 단정하는 이유는 각 서신의 내용 가운데 바울의 집필 상황이 죄수로서 복역(服役) 중임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3:1; 4:1; 6:20; 빌 1:13, 14, 17; 몬 1:9, 13, 23).
- (4) 대부분의 옥중 서신들은 바울의 생애 말년에 집필된 것으로 그의 복음에 대한 사도로서의 사명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15. ㉠ 본서신의 대지(大旨)를 구분하라.

- ㉠ (1) 인사말/1:1, 2
 (2) 교리적 진술/1:3-3:21

- 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1:3-14
 - 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1:3-6
 - 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근거/1:7-14
- ② 영적, 각성을 위한 바울의 간구/1:15-19
- ③ 교회에 관한 부분적 진술/1:20-23
- ④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연합/2:1-22
 - ㄱ.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영적 상태/2:1-3
 - ㄴ. 하나님의 구원 방식/2:4-10
 - ㄷ.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2:11-18
 - ㄹ.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재 상태/2:19
 - ㅁ. 교회에 관한 부분적인 재진술(再陳述)/2:20-22
- ⑤ 영적 성취를 위한 기도/3:1-21
 - ㄱ. 하나님의 경륜(經綸)/3:1-6
 - ㄴ. 바울의 사도적 사명/3:7-13
 - ㄷ. 성도를 위한 바울의 간구/3:14-21
- ⑥ 교회에 관한 본론적인 진술/4:1-16
 - ㄱ. 연합을 위한 권면/4:1-3
 - ㄴ. 교회의 통일성/4:4-6
 - ㄷ. 직분의 다양성/4:7-11
 - ㄹ.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성숙/4:12-16
- (3) 실천적인 교훈들/4:17-6:20
 - 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4:17-5:21
 - ㄱ. 새 사람/4:17-24
 - ㄴ. 바른 삶을 추구하라/4:25-31
 - ㄷ. 서로 사랑하라/4:32-5:2
 - ㄹ. 순결한 삶/5:3-7
 - ㅁ. 빛의 자녀답게 살라/5:8-21
 - ②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삶/5:22-6:9
 - ㄱ. 남편과 아내/5:22, 23
 - ㄴ. 부모와 자녀/6:1-4
 - ㄷ. 주인과 노예/6:5-9
 - ③ 그리스도인의 영적 투쟁/6:10-20
 - ㄱ. 영적 투쟁을 위한 무장/6:10-18
 - ㄴ.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6:19, 20
- (4) 마지막 인사/6:21-24
 - ① 두기고에 관한 언급/6:21, 22
 - ② 축복/6:23, 24

16. ㉠ 본서신의 요점은 무엇인가?

- ㉡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0).

제 1 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다

단락구분 1-3 에베소 교인들에게 문안하다 / 3-7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다 / 8-19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 11-14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 15-19 은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다 / 20-23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도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

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5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고

16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1. ㉠ 본장의 구조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 (1) 본서신 전체를 개괄하고 있는 본장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2) 전반부는 3-14절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이 한 편의 찬미시(讚美詩)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3) 원래 단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예정(4, 5, 9, 11절), 그의 아들됨(5절), 죄 사함(7절), 성령의 인침(13절), 기업의 보증(14절) 등 구원과 관련된 기독교의 주요 교리가 담겨 있다.

- (4) 한편 15-23절로 구성된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성취된 영적 축복들을 에베소 성도들이 깨닫고 이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바울의 염원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성취된 교회에 관한 진술로써 결론을 맺고 있다.
- (5) 오늘날 성도들은 본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그것들을 주셨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각으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부응(副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2. **㉠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지칭(指稱)하고 있는가? (1절)**

- ㉠** (1)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 (2) 이처럼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 것은 대부분의 서신서 서두(序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참조, 롬 1:1; 고전 1:1; 고후 1:1; 빌 1:1; 골 1:1; 딤펴전 1:1; 딤후 1:1; 딤펴 1:1).
- (3) 이와 같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직분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보여 주려는 데에 있다(갈 1:1).
- (4) 그리스도의 일군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도구임을 인식하고 보기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솔히 여기지 않는 충성된 자세가 필요하다(마 25:21; 눅 16:10; 19:17; 고전 4:2).

3. **㉠ 사도(使徒)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절)**

- ㉠** (1)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파견(派遣)하다', '보낸다'는 의미를 지닌 <아포스텔로>에서 파생된 말인데,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송받은 사람을 가리킨다(참조, 마 10:5, 16; 21:1; 막 3:14; 12:2; 눅 1:19; 요 1:6; 롬 10:15; 고전 1:17).
- (2) 즉 이 용어는 국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大使)라든가 특수 임무를 띠고 파견된 부대의 요원 등에 해당되는 말이다.
- (3) 또한 사도란 말은 예수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즉 이 말은 당시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Sanhedrin)의 결정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그 대리자의 자격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도 사용되었다.
- (4) 이렇게 파견된 사도의 배후(背後)에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 최고 집행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권위가 있었다.
- (5)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들이므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권세로써가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맡겨진 사명을 확실히 감당해야 한다(고전 2:4; 고후 4:7).

4. **㉠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1절)**

- ㉠** (1) 그는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을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 (2) 그런데 '성도들'(헬, 하기오스)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이다(행 9:13; 롬 12:13; 고전 1:2; 고후 9:1; 빌 4:21; 골 1:4; 살전 3:13).
- (3) 이 말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경건을 나타내 준다.
- (4) 또한 '신실(信實)한 자들'(헬, 피스토스)은 주께 대한 신뢰와 충성을 겸비한 신자들을 비유하는 표현이다(고전 4:17; 벧전 5:12; 요삼 1:5).
- (5)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거룩하고 충성된 신앙 특징들을 상기하면서 그들을 불렀던 것이다.
- (6) 신앙인이 참맛을 잃어버릴 때 그는 맛 잃은 소금과 같이 쓸모없다(마 5:13).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맛을 잃지 말고 세상 앞에 자신을 분명히 구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눅 18:8; 요 20:27; 롬 6:19; 살전 4:3; 히 12:14).

5. ㉠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슨 인사를 하는가? (2절)

- ㉡ (1)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했다.
- (2)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 통용되었던 전형적인 인사법으로서 여러 서신의 서두에 대부분 나타나 있다(참조, 롬1:7; 고전1:3; 고후1:2; 갈1:3; 빌1:2; 골1:2; 살전1:1; 살후1:2; 딤후1:2; 딤후1:2; 벧전1:2; 벧후1:2; 계1:5).
- (3)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은혜' (헬, 카리스)는 헬라인의 인사 용어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예수의 속죄 사역으로 값없이 누리게 된 구원의 은총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한편 '평강' (히, 샬롬)은 주로 히브리인들이 개인의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을 기구(祈求)하는 인사말이다(창29:6; 삼상25:6; 삼하20:9; 왕하4:26).
- (5) 이 같은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이 없다(2:7; 요14:27; 골1:20).
- (6)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거짓을 없애고 이러한 인사말이 오가는 것이야말로 참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무리들이 마땅히 행할 바이다.

6. ㉠ 바울은 왜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가? (3절)

- ㉡ (1) 그는 앞으로 열거될 귀중한 영적 축복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내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자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
- (2) 더구나 이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므로 바울이 감격하여 찬송한 것이다.
- (3) 이 같은 바울의 찬송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사역이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의 영원 불변하신 뜻에 의해 결정된 사실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딤후1:9).
- (4) 찬양은 믿는 자의 특권이자 증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구속을 확신하는 자만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시33:1).

7. ㉠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3절)

- ㉡ (1) 본장 가운데 나오는 이 말은 성도들에게 일어난 모든 구원의 사건들이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즉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 (2) 또한 다른 서신에서 사용된 이 표현은 신자(信者)와 그리스도와의 생명력 있는 영적 연합을 의미하기도 한다(참조, 2:5, 6; 롬6:3-6).
- (3) 한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그의 서신서 전체에서 164회, 본서신에서 30회 그리고 본장 3-11절 사이에서 무려 11회나 언급하고 있다.
- (4) 이처럼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야말로 신앙 생활의 근간(根幹)이며 핵심이라 볼 수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니려면 그분의 요구와 뜻에 순종하며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요15:4-7).

8. ㉠ '신령한 복'이란 어떤 축복인가? (3절)

- ㉡ (1) 이 복(福)은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spiritual blessing)이다.
- (2) 자칫 우리는 성경에 언급된 '신령하다'는 말에서 도교적인 신선(神仙)이나 기복적인

샤머니즘(shamanism)을 연상하기 쉽다.

- (3) 그러나 본질에 언급된 이 복은 인위적이거나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은혜로운 축복이며 영생을 약속하는 복이다.
- (4)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물질적인 축복만을 그 전부로 알고 이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성경적인 참된 축복의 의미를 오해한 결과이다(시 2:12; 133:3; 잠 3:13; 8:13; 16:20; 약 1:12; 벰전 3:14; 4:14).

9. **㉠**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시기는 언제인가? (4절)

- ㉠**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일은 이미 ‘창세 전’, 즉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
- (2)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임시 방편으로 급조(急造)된 것이라든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좌우된 일이 아니라 당신의 독자적인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딤후 1:9).
- (3) 더구나 이 ‘선택’은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공로나 자량을 꺾어 버린다(롬 9:11).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만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롬 11:8-20; 고전 1:27).

10. **㉠**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선택받은 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2) 그런데 본질의 ‘흠(欠)이 없게’라는 말은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서 바치던 희생 제물과 관계가 있다.
- (3)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짐승 가운데는 어디 한 군데라도 결점이 발견될 경우 그 짐승은 제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고 말았다(참조, 레 22:20; 민 6:14; 신 15:21).
- (4)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제물처럼 부정(不淨)과 불법에서 떠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언어와 생활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수 있는 거룩한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빌 4:18; 히 9:23).

11. **㉠**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기초는 누구이신가? (3, 4절)

- ㉠** (1)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유일한 기초가 되는 분은 교회의 기초이시며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2:20; 벰전 2:6).
- (2) 왜냐하면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며 또한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 (3) 또한 성경은 친히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러 오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참조, 마 11:27; 요 6:37, 39, 44; 10:29; 17:2).
- (4) 이처럼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벰전 1:19).

12. **㉠** 택함 받은 결과 우리는 어떤 신분에 이르게 되었는가? (5절)

- ㉠** (1)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 신분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 (2)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파피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탈바꿈된 것을 의미한다(2:13, 19; 고후 6:18; 갈 4:28; 골 1:21, 22).
- (3) 즉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진노의 자녀였으나(2:3; 롬 5:10) 그리스도 희생으로 말미암은 선택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천국의 모든 선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양자(養子)가 된 것이다(참조, 롬 8:23; 갈 4:5).

(4) 이처럼 우리는 모두 죄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벌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롬 8:2; 고후 5:17; 골 1:14; 3:10).

13. ㉠ 예정이라는 말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5절)

- ㉠ (1) '예정하다'(헬, 프로오리조)는 말에는 '미리 표시하다' 혹은 '미리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다.
- (2) 이것은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으셨다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효를 제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3) 한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개개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다.
- (4) 그러므로 예정의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계적이거나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5) 도리어 성도들은 많은 사람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4:1; 빌 1:27; 골 1:10; 살전 2:12; 살후 1:11).

14. ㉠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6, 12절)

- ㉠ (1)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을 뽑아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의 반열(班列)에 두신 것은 그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2)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특별히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할 목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시 100:3; 113:3; 사 43:21).
- (3) 더우기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보좌 앞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찬양하도록 되어 있다(제 5:12, 13).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기 보다는 우리의 구원을 더욱 값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당신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게 한다.

15. ㉠ '구속'(救贖)의 구약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7절)

- ㉠ (1) 구약의 모세 율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되었던 토지나 사람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레 25:25-27, 47-49; 민 18:15).
- (2) 그런데 그 토지나 사람을 상환(償還)받으려면 속전(贖錢)이라 부르는 일정한 금액을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했다(출 30:16; 민 3:48, 49; 35:31).
- (3)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그 값을 지불하여 원래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 돌려 주는 일을 시행하셨다(참조, 딤후 2:14; 히 2:17; 9:7, 22; 벧전 1:18, 19; 계 1:5).
- (4)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로서 지금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히 13:8).

16. ㉠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경륜(經綸)은 무엇인가? (9, 10절)

- ㉠ (1)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경륜은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목적 아래로 통일(統一)하시는 것이다.
- (2) 그런데 이 같은 통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때에 맞춰 이루어질 것이다.
- (3) 한편 본절에 언급된 '통일되게 하다'라는 말은 본래 세로 덧셈하듯이 맨 아래 수자부터 계산해 올라가면 마지막 꼭대기에 가서 총계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뜻을 지닌다.
- (4) 이와 같이 역사의 종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대결산(大決算)을 하실 것이다(참조, 눅 19:15; 롬 14:12; 벧전 4:4, 5).
- (5)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지상에서 살 동안 더욱 경성하여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마 25:21; 눅

16:10).

17. **㉠**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으로 이방인은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가? (11절)

- ㉡** (1)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할당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2)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유일한 민족으로 택정받았었다 (출 15:17; 신 4:20; 7:6).
 (3)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옛 특권은 폐지되고 모든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 한해서 축복의 분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행 20:32; 26:18; 골 1:12; 히 9:15; 뱀전 1:4).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善人)이나 그 누구든지 차별하시거나 편애(偏愛)하지 않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푸신다(참조, 롬 3:22; 10:12; 16:26).

18. **㉠**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13절)

- ㉡** (1) 먼저 복음의 진리를 듣는 과정이다. 복음 전파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과 세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진리를 접할 때 비로소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를 알 수 있다(시 78:1; 사 21:7; 겔 20:8; 롬 10:7, 14, 18).
 (2) 그 다음은 전파된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과정을 거친다. 아무리 은혜롭고 풍성한 말씀이 들려진다 해도 그 진리가 심령을 두드리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창출해 내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히 4:2).
 (3) 마지막으로 들려지고 믿어진 그 진리를 결정적으로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침의 과정이 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그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
 (4) 결국 복음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감동으로써만 가능하다(4:30; 요 3:33; 고전 2:5; 고후 1:22).

19. **㉠** 성도들이 상속받을 기업에 대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13, 14절)

- ㉡** (1) 미래에 성취될 천국의 행복을 이 세상에서도 확신하는 믿음과 체험하는 은혜를 주신다.
 (2) 즉 성령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결정적으로 보증(保證)하신다(참조, 고후 1:22; 5:5).
 (3) 그런데 '보증' (헬, 아라본)이란 말은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던 용어인데 그것은 어떤 물품에 대한 금전 관계를 분명히 이행(履行)하겠다는 표시로서 지불하는 선금(先金)이다.
 (4)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미리 맛보는 것은 성령의 보증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천국과 구원 등 하늘에 속한 영적 축복들은 공허한 말 장난이 아니라 성도들의 내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한 확신이다(롬 8:38; 고후 2:3; 빌 1:6; 히 6:9).

20. **㉠**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가? (15, 16절)

- ㉡** (1) 그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였다.
 (2) 바울은 그가 섬겼던 모든 교회를 염려하면서 언제나 부지런하고도 지칠 줄 모르는 기도를 드렸다(롬 1:9; 빌 1:9; 골 1:3, 9; 살후 1:11).
 (3) 특히 교회들이 이교 신앙에 빠질 때나,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는 바울이 더욱 애타게 그들을 권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의 서신에서 볼 수 있다(롬 16:17, 18; 고전 1:11; 빌 3:18; 살후 2:2).
 (4) 더구나 바울이 부자유한 죄수의 몸으로 타인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보인 행동은 모든 성도의 귀감(龜鑑)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과 관심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이웃의 고통과 염려

에 동참하고 무엇보다 그 처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참조, 롬 12:15; 갈 6:2; 살전 5:14).

21. **㉠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7-19절)**

- ㉠** (1)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갖도록 기도했다(17절).
- (2) 둘째는, 자신들을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과 기업을 주시는지 곧 그 소망과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도록 기도했다(18절).
- (3) 셋째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했다(19절).
- (4) 이처럼 대부분의 기도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풍성한 영적 축복들을 보다 생생하게 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 (5)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축복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귀한 영적 축복들을 간과한 까닭이다.

22. **㉠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17절)**

- ㉠** (1)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많은 양의 지식을 확보했다 하여 가능한 것은 아니다.
- (2) 오히려 그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즉 성령의 조명(illumination)을 통하여 가질 수 있다(마 11:27; 롬 16:26; 갈 1:12; 벰전 1:12).
- (3)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비밀에 싸인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전 2:6-8).
- (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그 속에 담겨 있는 비밀한 계시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참조, 벰후 1:20, 21).
- (5)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릴 목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지적인 풍부함 보다는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전 2:4, 5).

23. **㉠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20절)**

- ㉠** (1)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그의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2)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곧 미래에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된 모습의 상징이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5:20, 23; 고후 1:22; 히 7:22).
- (3)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멍에 아래 몸부림치며 악전 고투(惡戰苦鬪)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래에 있을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 (4)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우리가 될 것이다(고전 15:17, 19). 그렇지만 우리의 믿는 도리(道理)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써(히 3:1) 이 모든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있다.

24. **㉠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월등한 지위에 오르셨는가? (21절)**

- ㉠** (1)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와 이 세상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탁월한 위치로 오르셨다.
- (2) 그런데 본질에 언급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는 바울의 활동 당시 이단적인 교사들에 의해 숭배를 받았던 천사들을 가리킨다(골 1:6).
- (3) 이러한 표현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우월하시다는 뜻이다.
- (4) 한편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즉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월등하게 지속될 것을 보여 준다(참조, 눅

1:33; 롬 1:25; 고후 9:9).

- (5) 오늘날 스스로 기독교회로 자처하는 교파 중에는 그리스도 외에 마리아나 성물(聖物), 혹은 성인(聖人) 등을 숭배하기도 하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만유의 주(主) 되심을 부인하는 가르침으로서 단호히 거부되어야만 한다.

25. **㉠**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였는가? (22절)

- ㉠** (1)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진술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로써 비유하고 있다(고전 12:15-21).
 (2)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여러 기관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격으로서, 몸의 각 부분들에게 명령하는 위치에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위치에 있다(참조, 4:15; 5:21, 23; 골 1:18).
 (3)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온 우주의 통치권을 위임하시어 우선 1차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원래적인 주권을 성취하신다(사 9:7; 단 7:14; 계 2:26; 12:5; 19:6).
 (4) 그런 점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교훈하셨다(요 15:5).

26. **㉠**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란 어떤 의미인가? (23절)

- ㉠** (1) 그것은 1차적으로 교회란 그리스도가 충분히 표현되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 즉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며 세상 속에 자신을 충만히 드러내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
 (3) 그러므로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드러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4) 만일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사용되는 도구임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당신의 계획이 완성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전 15:58; 딤후 6:11-14).

본장의 요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제 2 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단락구분 1-3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 사람 / 4-1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 / 11-12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이 없었던 존재들 / 13-18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다 / 19-22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다

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4 고통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

이라

12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나라

1. ㉠ 본장에서 다루어진 중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1장의 내용을 확대 발전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속(救贖)과 화해(和解)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2)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대비(對比) 시키면서 당신의 값없는 구원이 택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다.
- (3) 더 나아가 영적으로 분리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화해되

어짐과 동시에 그들이 서로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4) 이처럼 구속과 화해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야말로 진리와 비진리, 삶과 죽음의 분기점이자 경계선이라 할 수 있다(참조, 요14:6).

2. ㉠ 1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떠한 죽음을 가리키는가?

㉠ (1)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교훈하고 있다(참조, 롬 6:23; 7:10, 24; 골 2:13).

(3)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어떠한 자연적인 선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것은 성경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다(참조, 대하24:2; 눅6:23; 행28:2; 롬 6:33).

(4) 오히려 그들이 선을 행하는 근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계명을 순종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선행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롬 8:8; 고전2:14).

(5)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자체가 죽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곧 참되고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3. ㉠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았는가? (1절)

㉠ (1)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죽음이 인간의 ‘허물’과 ‘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2) 여기서 ‘허물’ (헬, 파라프토마)이란 원래 ‘넘어지다’, ‘정로(正路)에서 떨어지다’는 뜻으로서 부주의하여 진리에서 떠나는 것 또는 그러한 잘못된 경향성을 가리킨다.

(3) 그리고 ‘죄’ (헬, 하마르티아)란 과녁에 화살을 맞히지 못했던 데서 유래된 말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의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4) 어떻게 보면 위의 두 단어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동과 사상과 인격들을 가리키는데 위의 두 단어를 혼용할 수 있다.

(5) 여하튼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원인이 되는 ‘허물’과 ‘죄’는 단순히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 버린 존재로 남겨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있는 생명력까지 앗아가고야 만다(참조, 창3:19; 약1:15). 사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버린 행동과 사상과 언어와 문화를 청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부한 생명력을 누려야 할 것이다.

4. ㉠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2, 3절)

㉠ (1) 먼저 참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 세력에 이끌려 살아간다.

(2) 그런데 영적 사망자가 추종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세상과 마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다.

(3) 즉 그들은 날마다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대해서는 현세적인 표준과 가치관에 의해 삶을 영위한다.

(4)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유인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 죽음에로의 행진을 계속하게 된다.

(5) 뿐만 아니라 내부의 죄된 욕망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세상적인 쾌락에로 인도한다(벧후3:3).

(6) 죽어 버린 존재는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께

서 좌정(座定)하지 않은 심령은 다른 세력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다(롬6:6,17;갈4:8).

5. ㉠ '세상 풍속'을 좇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삶의 주된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역행(逆行)하는 것을 말한다.
 (2) 가끔 신앙 성경은 '세상' 혹은 '세대'를 하나님 없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표현한다(참조, 마12:39;요7:4,7;8:23;행2:40;요일2:15-17).
 (3)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한 사회의 미풍 양속(美風良俗)인 건전한 문화 양식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
 (4) 오히려 그러한 사회적인 삶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신앙적인 흐름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을 배격하고 있다.
 (5)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을 신앙에 충실한 행위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거나 도피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참조, 마5:13, 14; 고후5:9, 10; 살후3:10).
 (6)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고 당신이 살아 계신 문화를 창출해 주기를 바라신다(참조, 마5:13-16).

6. ㉠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는가? (3절)

- ㉠ (1) 선민(選民)이었던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반목 상태(反目狀態)에 놓여 있었다.
 (2) 한편 1,2절의 '너희'라는 말에서는 이방인의 영적 정황이 나타나 있고, 3절에서는 '우리도'라고 하여 유대인의 상황이 드러나 있다.
 (3) 이처럼 죄에 관한 한 모든 인간은 근원적으로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다(참조, 창6:5;시51:5;롬3:9, 23;5:12;요일1:8).
 (4) 그러므로 사람의 어떠한 인격과 학식 그리고 혈통적인 배경이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宣言)을 면치 못한다(롬3:9).

7. ㉠ 죄 아래 놓여 있던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4-6절)

- ㉠ (1)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갱신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풍성한 긍휼과 값없는 은총으로 나타났다.
 (2) 그런 점에서 4절 이후의 내용과 그 앞 부분의 내용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와 더불어 현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3)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다.
 (4) 그런데 옛 상태에서 새로운 혁신으로 옮겨진 변화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동인(動因)이 되었다.
 (5) 그러므로 만물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介入)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 죄 가운데 죽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제거될 수 없다(참조, 사43:19;벧후3:4;계21:5).

8. ㉠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하셨는가? (5,6절)

- ㉠ (1)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먼저 '살리셨고'(...made us alive...) '일으키사'(...raised us up) 그리고 '앉히시니'(...made us sit)라는 과정을 거쳐 구원하셨다.
 (2)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시체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다시 소생시킨 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귀한 자리로 앉히는 광경을 연상케 한다.
 (3)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구원이 일련의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장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다(빌1:6).

9. **㉠ 일련의 구원의 과정에 나타난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5, 6절)**

- ㉠** (1) 성도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의 각 단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 그 특징이다.
- (2) 즉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다.
- (3) 이것은 성도의 신앙적 경험이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모든 사건, 즉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연관되어 있음을 뜻한다.
- (4) 이러한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바울의 주요 사상과도 상통(相通)하는 것이다(참조, 롬6:4-8; 8:17; 골2:12, 13; 딤후2:11, 12; 계20:4).
- (5) 그러므로 이 같은 방식으로 구원의 자리에 오르게 된 성도가 그리스도와 영교(靈交)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또다시 영적 사망의 자리로 떨어뜨리려 하는 사람일 것이다.

10. **㉠ 은혜, 믿음, 구원은 각각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7, 8절)**

- ㉠** (1) '은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표시이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통로(channel)이고, '구원'은 은혜가 원인(原因)이 되고 믿음이 그 수단이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 혹자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믿음은 인간의 산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A. T. Robertson).
- (3)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란 결코 인간에 의해 자생(自生)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교훈하고 있다(고전2:5).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믿음만큼은 인간의 공로로 돌리려는 사람의 여하한 착각에도 썩기를 막으시는 것이다.
- (5) 이 사실을 망각하여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의 아주 작은 일부나마 그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려 한다면 그는 참으로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성도일 것이다.

11. **㉠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배제(排除)되는 것은 무엇인가? (8, 9절)**

- ㉠** (1) 우리 개인의 행위와 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이 배제된다.
- (2)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하나님의 완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 (3) 또한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었지, 인간에게서는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의 풍성한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리라(시9:14; 35:9; 사25:9; 은2:9).

12. **㉠ 행위는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10절)**

- ㉠** (1) 행위가 구원의 원인(原因)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結果)로서 나타나야 한다(약2:14-26).
- (2) 즉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줄 수 없다 하여 구원받은 인간이 선행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 (3)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위는 구원의 실재(實在)를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약2:18).
- (4) 그러므로 선한 행위가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 해서 선행을 무시하거나 망각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5)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5:1, 9; 갈5:22, 23; 벧전2:21).

13. **㉠** 복음을 받기 전의 이방인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11, 12절)

- ㉠** (1) 첫째, 이방인의 몸에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이며 표식(標識)이었던 할례의 증거가 없었다. 이것은 곧 이방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었음을 의미했다(출12:48; 수5:7; 겔28:10).
- (2) 둘째, 이방인에게는 메시아에 관한 희망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사관은 유대인에 비해 전진적이거나 낙관적이지 못했다(사42:9; 빌1:6; 벧전3:10).
- (3)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었다(창17:7, 8; 26:1, 5; 출20:2; 신5:2; 고후6:16; 갈3:8, 9).
- (4) 그러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개방하신다(마4:16).

14. **㉠**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에 대해 설명하라(14절).

- ㉠** (1)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장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2) 즉 성전의 울타리에는 이방인이 성전 안뜰로 넘어올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이 둘 사이의 엄격한 구획(區劃)이 그어져 있었다.
- (3) 더구나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이 겪은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체포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예베소의 이방인 드로비모(Trophimus)를 데리고 이 장벽을 지나 성전에 들어갔다는 오해 때문이었다(행21:27-29).
- (4) 이처럼 이 장벽은 이방인들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 (5)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로 이 장벽을 허시고 누구나 회개와 믿음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히10:20).

15. **㉠**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15절)

- ㉠** (1) 이것은 예수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마5:17) 죄를 깨닫게 하고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율법 자체를 없애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 (2) 오히려 편협된 유대주의의 관습이나 금령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제사법, 할례 의식, 식사법, 안식일, 금식 등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이탈된 세세(細細)한 규칙들을 쓸모없게 만드신다는 의미이다(참조, 롬3:14).
- (3)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같은 율법주의적인 방식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폐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참조, 롬3:21, 22; 갈2:16).
- (4)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나치게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는 폐쇄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한 공동체 또는 한 인격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

16.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16, 17절)

- ㉠** (1)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분과 원수 관계를 맺게 만든 죄를 소멸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화목을 이루셨다(롬5:10; 고후5:18; 골1:20).
- (2) 또한 반목 질시(反目嫉視)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중재자로 오셔서 그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수평적인 화해를 이루셨다(13절; 행10:28; 11:18; 갈2:14).
- (3) 즉 그리스도는 율법적인 조건이나 혈통, 인종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에게나 산 소망을 주신 것이다(마28:18-20; 요1:29; 3:16; 11:51).
- (4)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요14:6; 행4:12) 개인과 개인 간의 미움과 민족간의 증오를 없애는 평화의 도구이다(시9:6; 요14:27; 16:33; 롬5:11).

17. **㉠**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시는가? (18절)

- ㉠** (1) 그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 (2) 본절의 ‘나아감’ (헬, 프로사고게)이란 용어는 ‘입문’ (introduction) 혹은 ‘접근’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3) 한편 이 용어는 고대 동양의 궁전에서 왕을 알현(謁見)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안내하는 직책을 맡은 신하에게 사용되었다.
- (4)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셨다(마27:51; 히4:16; 10:19, 20).
- (5)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라도 그들에게는 아버지께 아뢰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잊지 말자(마7:7; 눅18:1; 빌4:6).

18. **㉠** 이방인의 옛 상태와 지위는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19절)

- ㉠**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은 더 이상 외국 땅에 잠시 거주하는 사람 같은 외인(外人)도 아니고, 외국 방문객처럼 이스라엘 내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손’도 아니다.
- (2)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떳떳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빌3:20; 뱀전2:9).
- (3) 그리고 시민보다는 더 친밀하고 인간적인 관계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요1:13; 갈4:7).
- (4)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혈연이나, 신분, 환경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이며 자매이고 가족이다(마12:50; 골3:11; 딤펢전5:1-2).

19. **㉠**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20, 21절)

- ㉠** (1)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요 모퉁이 돌(the chief corner stone) 이시다(시18:22; 사28:16; 마21:42; 행4:11).
- (2) 또한 모퉁이 돌이 한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결정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하게 되도록 기초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신다.
- (3)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하나되게 하시는 통일의 기초가 되실 뿐 아니라 각각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긴밀히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케 하는 원리도 되신다.
- (4) 그러므로 전통이나 의식 등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곳이 참된 교회이다(마16:18).

20. **㉠** 바울의 교회에 관한 진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22절).

- ㉠** (1) 그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 (a dwelling place of God)으로 비유하고 있다.
- (2)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處所)는 성막이나 성전이였다(참조, 출17:4; 25:22; 29:42; 삼하15:25; 시11:4; 함2:20).
- (3)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였던(히8:5) 옛 언약이 폐기되어(히8:13; 10:9)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시지 않고(행7:46-50; 17:24) 이제는 성령으로 새로 창조하신 자기 백성들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고전3:16, 17).
- (4) 그러므로 교회는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듯이 건물이나 집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 즉 부르심과 속죄함을 받은 성도 전체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여 하늘의 시민과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인 성도들을 당신의 처소로 삼기까지 영광롭게 하셨다.

제 3 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經綸)이 드러나다

단락구분 1-9 이방인을 구하시기 위해 바울에게 주신 큰 은혜의 경륜 / 10-13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밝혀지다 / 14-19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간구하다 / 20-2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1 이이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갠 자 된 나 바울은...

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4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

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담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13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4 이이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바울은 본장을 통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무엇인가를 힘있게 강조하고 있다.
- (2) 그런데 본장의 내용 전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경륜이 무엇인가? (1장)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2장)에 이어 그러면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점으로 연결되고 있다.
- (3) 한편 바울은, 이 같은 교회를 위한 당신의 경륜을 성취하는 사역자로 자신이 택함 받아 봉사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였다.
- (4) 이와 같이 영광스런 하나님으로부터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 개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승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이며 그릇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1, 8, 9절; 롬 9:24; 고후 4:7; 딤후 2:20).

2. **㉠** 본장을 기술할 때에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가? (1절)

- ㉠** (1) 그는 죄수라는 불명예스런 신분으로 로마 옥중에 감금되어 있었다(참조, 행 28:16).
 (2)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 자신을 치욕스런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명예로운 투사(鬪士)로 여겼다.
 (3)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방에 전달하는 그릇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이었다(행 9:15; 26:18).
 (4)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사람들에게 비방이나 조롱, 혹은 물질적 손실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마 5:11; 행 14:22).

3. **㉠**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경륜(經綸)은 무엇이었는가? (2절)

- ㉠** (1)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을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택하여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신 은혜로운 계획이다(7, 8절; 4:7-13).
 (2) 그런데 본절에 나온 '경륜'(행, 오이코노미아)은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해당하는 말로서 '집안 관리' 혹은 그 일을 맡은 '직분'을 의미한다.
 (3) 그런 점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경영의 뜻으로 사용된 1:9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4) 한편 바울이 이를 은혜의 경륜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울 자신이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자로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이다(행 9:15; 11:23).
 (5)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소용되는 일군으로 삼으신다.

4. **㉠**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시는가? (3절)

- ㉠** (1)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하신다.
 (2) '계시'(행, 아포칼립시스)란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라는 의미가 있다.
 (3)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 인간의 양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현현(顯現)하시는데, 이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할 수 있다.
 (4)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는 성령의 감동과 조명(illumination)을 통해 알 수 있다(참조, 고전 2:13).
 (5)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어 놓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뢰해야 한다(벧후 1:19-21).

5. **㉠** 바울은 왜 하나님의 계시를 '비밀'이라고 말하는가? (3, 4절)

- ㉠** (1)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베일에 싸인 채로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사 6:9, 10).
 (2)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계시를 가리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9절)이라고 말했다.
 (3) 한편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시기, 내용, 성격 등이 신비스럽게 감추어진 비밀한 것으로 언급되거나 비유되고 있다(참조, 마 13:11; 막 4:11; 눅 8:10; 롬 11:11-24; 고전 1:18-2:16; 골 1:28).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당신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요 16:13; 고전 2:12).
 (5) 하늘의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더 한층 이 진리를 값지게 믿어야 할 것이다(벧전 1:12).

6.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시는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신약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려 주셨다(롬 16:25, 26; 골 1:26, 27).
- (2) 물론 모세, 엘리야 등 구약의 사람들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창 12:3; 22:18; 26:4; 28:14; 사 11:10; 49:6; 60:1-3; 호 1:10; 암 9:11; 말 1:11).
- (3) 그러나 구약의 성도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스라엘만의 선택 개념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놓여 새로운 유기체가 된다는 사실은 숨겨진 비밀이었다.
- (4) 실제로 이 같은 예언의 성취에 대한 참뜻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생소한 것이었다(참조, 행 11:2, 3; 갈 2:13).
- (5)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드러난 이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의 포로가 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준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 때까지 복음을 외쳐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7. **㉠** 5절에 제시된 단어들 중에 난해한 것들을 골라 간단히 풀이하라.

- ㉠** (1) 먼저 '다른 세대'란 하나님 자신의 구원 역사(役事)가 완전히 계시되기 전의 시대로 그분의 뜻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지 못했던 시기를 말한다(행 14:16; 17:30).
- (2) 또한 '사람의 아들들'은 70인역(LXX)에 흔히 나타나는 표현으로서 신약 성경에는 단 한번 나온다(막 3:28). 이 단어는 유대인들을 관계적으로 묘사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대조되는 말이다. 즉 이 단어는 이방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 (3) 한편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둘 다 초대 교회의 직분이며(참조, 2:20; 4:11) 이들은 주로 교사로서 활동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이르러 당신의 복음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 이들에게 명백히 밝히셨다.

8. **㉠**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누리게 된 축복은 무엇인가? (6절)

- ㉠** (1) 먼저 그들은 하늘에 속한 영적 유산들을 유대인과 함께 누리는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다(롬 8:17; 갈 3:14, 29).
- (2)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참여자요 협력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 (3)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外人)이었던 이방인들이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유대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롬 11:11; 갈 3:14).
- (4) 특히 본절에는 바울의 서신에 자주 나오는 '함께'라는 말이 각 비밀의 내용에 첨가되고 있다(2:5, 6; 롬 6:8; 골 2:13).
- (5) 이처럼 복음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능력과 권위를 발휘한다.

9. **㉠** 복음의 일군된 바울의 자세는 어떠하였는가? (7, 8절)

- ㉠** (1) 그는 온 인류의 근본적인 방향을 가능해 줄 위대한 복음을 위탁받은 특권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극히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하였다.
- (2) 바울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한 표현은 결코 수사적(修辭的)인 화려함이 아닌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의 잘못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5:9; 딤후 1:15).
- (3) 여기서 바울은 사도적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게 드러난다는 원리를 체득하였다(고후 4:7; 12:9, 10).
- (4)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할 때 자신을 나타내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

의 영광만이 돋보이도록 힘써야 한다(고전 3:7;4:9-13).

10. **㉠ 정사(政事)와 권세들에 대한 교회의 봉사적 기능은 무엇인가? (10절)**

- ㉠** (1) 교회는 인간의 구속 계획을 알고 싶어하는 하늘의 천사들에게(벧전 1:12)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알려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2) 본절에 언급된 ‘정사와 권세들’은 바울 서신의 대개의 표현처럼(1:20;6:12;골 1:16) 악한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킨다(Hendriksen).
 (3) 즉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 그들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4)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봉사 영역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더 넓게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확장된다.

11. **㉠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가? (12절)**

- ㉠** (1) 그리스도인은 주께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2) 그런데 ‘담대함’(헬, 파레시아)이란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어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기초 위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층 더 확신시켜 준다.
 (3) 또한 ‘당당히’라는 말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어 하나님께 떳떳하고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히 8:25;10:19).
 (4)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근절할 수 없는 공포의 신(神)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이시다(마 7:10, 11; 롬 8:15; 갈 4:6).

12. **㉠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옥중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13절)**

- ㉠** (1) 그는 자신이 받는 투옥과 환난이 복음 전도에 치명적인 손실을 준다고 보지 않았다.
 (2) 오히려 자신이 겪는 고통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워져야 할 분량으로 알고 기뻐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했다(골 1:24).
 (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이 영광으로 바뀐 것처럼 바울은 옥중 고난을 통해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했다.
 (4) 성도가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고난을 신앙의 성숙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시 119:71; 히 12:10; 벧전 2:19).

13. **㉠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4, 15절)**

- ㉠** (1)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화해시키시는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되게 하신 분이시다.
 (2) 즉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종교적 배타성이나 민족적 자만 혹은 인종적 차별을 무너뜨리시고 온 우주 가운데 택한 자기 백성들을 한 가족으로 삼으신 분이시다(엡 2; 18, 19).
 (3) 또한 구약의 하나님처럼 부정확한 인간이라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엄위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처럼 친절하시며 애정에 넘치는 자비하신 아버지이다.
 (4)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삶의 중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참조, 수 1:5, 9; 히 13:5).

14. **㉠ ‘속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16절)**

- ㉠** (1) ‘속 사람’(the inner man)은 인간 내부의 중심지로서 영혼을 가리키기도 하며 혹은

이성(理性)과 양심 그리고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의 주체를 뜻하기도 한다.

- (2) 그런데 본절에 제시된 이 속 사람은 인간의 저속한 욕구와 대조되는 이성적인 인간을 가리키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새 삶의 원리가 뿌리 박힌 믿는 자들의 마음을 지칭한다(참조, 요 3:5; 고후 5:17).
- (3) 한편 성경은 '속 사람'을 육체적이며 일시적인 면을 가리키는 '겉 사람'과 대조하고 있다(롬 7:22; 고후 4:16).
- (4)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얼핏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쉽게 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수록 성도가 지닌 속 사람의 영적 생명력은 강건하고 점점 더 활기차게 된다(1:19; 6:10; 딤후 4:17; 요삼 1:2).

15. **㉠**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성도 가운데 거주(居住)하시는가? (17절)

- ㉠** (1)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을 때 그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內住)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롬 8:9, 10; 고전 3:16).
- (2) 이와 같이 성령과 그리스도가 동시에 내주하시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무신다고 말한다(참조, 요 14:17; 15:5; 갈 2:20; 3:2).
- (3) 또한 이 같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요 1:12; 14:20; 17:21).
- (4) 그리스도의 영(靈)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듯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참된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계 3:20).

16. **㉠** 성도들이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18, 19절)

- ㉠** (1)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한한 우리 인간들로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절대 헌신과 절대 회생을 요구한다.
-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넓이는 전세계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을 포함할 정도이다.
- (3) 또한 당신이 우리를 감싸시는 사랑의 길이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신 무한한 긍휼이다.
- (4) 뿐만 아니라 그 깊이에 있어서는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실 정도로 깊다(시 28:1).
- (5) 그리고 그 높이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재 기도를 드려 주시기까지 하신다(히 7:25).
- (6)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히 넓고 깊어서 그의 사랑의 범위 밖에 있는 어떤 인간이나 그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어떠한 장소도 없다.
- (7)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이 아무리 약해지고 그 자신이 무력할 때라도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사 40:31).

17. **㉠** 바울이 찬양드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0, 21절)

- ㉠** (1)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나 생각 그리고 상상을 훨씬 초월하시는 분이다(빌 4:7).
- (2)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요구(要求)나 사고(思考) 안에 머무시거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 (3) 도리어 풍성하신 그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다(1:20; 빌 1:6; 골 1:29).
- (4)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곧 하나님이 약하신 것으로 오해하며 하나님

의 위대하시고 풍요하신 능력을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18. **㉠** '아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21절)

- ㉠** (1) 히브리어에 그 기원을 둔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뜻으로 영어나 라틴어, 독일어 등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2) 이 말은 구약에서 모세 율법이 선포될 때(신 5:22; 27:15-26),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대상 16:36; 시 41:13; 72:19; 89:52; 106:48) 주로 사용되었다.
- (3) 한편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문두(文頭)에서 '진실로' 혹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로 사용하였고(마 5:18; 막 9:1; 요 10:10), 사도들은 서신서의 송영으로 대부분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롬 15:33; 16:27; 고전 16:24; 갈 6:18).
- (4) 결국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경륜의 종결은 아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어 참되게 이루어질 것이다(계 3:14; 5:14; 7:12; 19:4; 22:20, 21).

연구자료

하나님의 예정(豫定). 본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다(11절; 1:3-14). '이 예정'(predestination)이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타락한 인간들 중에 은혜로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선택(election)과 유기(reprobation)가 포함된다. 여기서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좇아 무조건적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을 자를 택해 놓으신 것을 가리킨다(11절; 1:4; 딤후 1:9). 반면에 '유기'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외의 남은 사람에게 대하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간과(看過)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마 11:25, 26; 롬 9:13, 17, 18; 11:7; 벰전 2:8). 그러므로 유기된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公義)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는 것일 뿐이다.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공평한 것으로 취급받아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알미니우스(James Arminius, 1560-1609)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에 반대하여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적으로 상반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불가항력적(irresistible)인 것이다. 즉 누군가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으며 받기 싫다고 해서 받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참조, 롬 9:16; 11:7).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하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참조, 롬 9:21).

제 4 장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와 거듭난 성도의 삶

단락구분 1-3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 4-6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 / 7-10 만물을 증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 11-12 다양한 성령의 은사 / 13-16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숙해지는 성도 / 17-19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 / 20-24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 25-29 거짓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 30-32 악한 마음을 모두 버리라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겸손과 은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목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6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증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은뭉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8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8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들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1. **㉠ 본장의 주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 (2) 여기서 바울은 그가 1장에서 3장까지 진술해 왔던 하나님의 원대하신 경륜과 예정, 구속, 화해 등의 교리들을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다.
- (3) 그런 점에서 본장은 교리적인 원리에서 실천적인 적용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바이다.
- (4) 교리와 실천은 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의 원인과 결과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교리처럼 실천적인 삶도 우리에게 절대 요구된다. 만약 교리와 실천 양자간에 하나만을 치중하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신앙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13-15절; 약 1:26).

2. **㉠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바울의 권면 속에 함축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절)**

- ㉠ (1)** 한 개인이 어떤 사회나 단체에 소속되었을 때는 그곳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의무가 주어지듯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 받은 성도에게도 자신을 불러내신 주의 뜻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 (2) 그런데 본절의 ‘행한다’ 라는 말은 ‘자기 생활을 영위(營爲)하다’ 는 뜻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가라는 권고이다(고전 7:17; 골 1:10; 살전 2:12).
- (3) 또한 ‘합당하게’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짝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즉 신앙인의 고백과 실천 사이에는 항상 평형(平衡)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교훈이다(참조, 마 3:8; 10:38; 행 26:20; 빌 1:27; 골 1:10).
- (4) 결국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 때 부름 받은 공동체, 즉 교회가 조화롭고 일치된 모습을 이루게 된다(고전 1:26; 살후 1:11; 딤후 1:9; 히 3:1).

3. **㉠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위한 첫번째 미덕인 ‘겸손’ 에 대해 설명하라(2절).**

- ㉠ (1)** ‘겸손’ (헬, 타페이노프로수네) 은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알고 자신을 작고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로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미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 (2) 그런데 고대 헬라 사회에서 겸손이란 남 앞에서 굽실굽실하거나 노예 같고, 비열한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저속한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기독교적인 사고처럼 권장할 만한 고상한 미덕은 아니었다.
- (3)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낮아지신 모범을 통해 이 용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독특하고 장려할 만한 미덕으로 전환되었다(마 20:26-28; 빌 2:5-8).
- (4) 겸손은 자기 극대화, 자기 합리화, 자기애(自己愛) 라는 안경을 벗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바라볼 때 가능하다.

4. **㉠ 바울이 권고하는 두번째 미덕은 무엇인가? (2절)**

- ㉠ (1)** 그 미덕은 ‘온유’(헬, 프라오테스)로서 ‘정중함’(gentleness) 이라고도 번역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2) 그 하나는 양극단 사이의 조화있는 균형, 즉 중용(中庸)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느 한 편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신앙 인격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 (3) 또 다른 의미는 주인의 명령에 잘 복종하는 길들인 동물처럼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덕성(德性)이다(약 3:3-8).
- (4) 이처럼 참된 신앙인은 조화롭고 정중하며 하나님의 통제를 성실한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에 살아 있는 자아를 부정하여 모든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5. **㉠** 부름 받은 성도가 갖춰야 할 세번째 자질은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오래 참음' (헬, 마크로투미아)으로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온갖 고통을 감수하며 물러서지 않는 성품을 가리킨다(참조, 고전 13:4; 고후 6:6; 골 3:12; 딤후 3:10).
- (2) 그러나 이 용어가 주는 더 심오한 뜻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인내를 최대 한도까지 지속함으로써 복수할 수 있는데도 결코 복수하지 않는 정신이며 결국 이것은 보복을 거부하는 정신이기도 하다(Lightfoot).
- (3) 한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롬2:4), 예수께서 박해자 바울에 대해(딤후 1:16)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대해 오래 참으신 데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벧전3:20).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내의 본을 알아 이웃에 대해 인내하는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벧후 3:15).

6. **㉠**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건덕(健德)은 어떤 것인가? (2절)

- ㉠** (1)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인데 이는 위에서 열거한 덕목들의 결론으로서 남의 결점과 약점을 발견하고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신이다.
- (2) 특별히 본절에 언급된 '사랑'이란 성적인 열정이 있는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라든지 혹은 친구 사이에 존재하는 우정을 의미하는 <필리아>나 또한 가족적인 애정을 나타내는 <스토르게>도 아닌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은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사랑인 <아가페>이다.
- (3) 때문에 이러한 감정은 단지 감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성격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 어떠한 그를 위한 의지적인 선을 끝까지 베푸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4) 그러나 이처럼 숭고한 사랑도 모든 일을 자기 위주 혹은 자기 본위로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자신을 중심으로 놓을 때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 (5) 오직 자신을 비어 십자가 그늘 아래 감춘 채 '나를 따르라',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부름 받은 교회에 평화와 사랑을 제공하는 길이다(마 16:24; 고전 10:32, 33).

7. **㉠**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열거한 요소들에는 각각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3-6절)

- ㉠** (1)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는 몸과 머리와와 관계처럼 서로 나누어질 수 없고 온전히 하나로 묶여진 유기체로서 '한 몸'이다(고전 6:15; 10:16; 골 1:18).
- (2) 또한 '한 성령'을 모신 교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데 이는 교회가 단순한 기관이거나 조직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체하는 신령한 공동체임을 보여 주는 말이다(롬 8:9, 10; 고전 12:7).
- (3)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불러내어 그 나라를 목표 삼고 전진하게 하는 '한 소망'이 있다(1:18; 골 1:5).
- (4) 보다더 중요한 요소로서 '한 주님'이 계시는데 이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했던 초대 교회의 통일된 신조(信條)였다(롬 10:9; 빌 2:11).
- (5) 더우기 '한 믿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主)요 왕으로서 전적으로 신

뢰하고 추종하여 신앙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 (6)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에 입교하는 자에게 베푸는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서의 ‘한 세례’가 있었다(요 3:3; 롬 6:3).
- (7) 그런데 이 같은 교회의 하나됨은 만유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였다(요 17:21).
- (8)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조직이나 정치상의 가시적인 일치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성령 안에서 사랑과 화평으로 성도들의 내면적인 하나됨과 하나님을 중심한 삶에 더 우선해야 한다(참조, 고전 1:11; 갈 5:20).

8. **㉠** 교회를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 교회의 봉사를 위해 각 개인에게 특별한 재능(gift)을 분배하신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획일적으로 양육하시지 않고 제각기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어 궁극적인 교회의 연합을 이루신다(고전 12:12-27).
- (3) 그러므로 본질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닌 특별한 사명 감당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사이다(고전 12:4-7).
- (4)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어떤 종류인가 올바르게 분별하여 교회와 타인을 위해 선용하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롬 1:11; 고전 7:7; 뱀전 4:10).

9. **㉠** 바울이 변형하여 인용한 시68:18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8절)

- ㉠** (1) 본래 이 구절이 갖는 역사적 배경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피정복자에게 공물을 요구하는 데서 나왔다.
- (2) 즉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정복자인 왕은 패전 국민들에게 선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요구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었고, 왕으로 묘사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실현자로 알려져 왔다.
- (3)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정복자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분배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었다.
- (4)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중시하여 공의의 측면에서 백성들을 다루시는(출 20:5; 34:14; 신 4:24) 반면, 신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 주시며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다(요 3:16; 롬 8:32).

10. **㉠**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9, 10절)

- ㉠** (1) 자신을 낮추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셨을 뿐 아니라 음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던 예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 모든 존재들을 초월한 곳으로 부활, 승천하셨다(참조, 요 3:13).
- (2)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은 우주의 전영역에 당신의 편재(偏在)를 실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만물을 당신의 주권 아래 두신다는 의미이다.
- (3) 즉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존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영향력을 행사하신다.
- (4) 더우기 당신께서는 구속받은 무리들을 당신의 목적하신 바에 맞게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며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무리들이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
- (5) 이처럼 우리들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신뢰하며 ‘나’ 또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모든 사건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나 자신과는 분리할 수 없는 것됨임을 인정해야 한다.

11. **㉠** 초대 교회의 교직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11절)

- Ⓐ (1) 본절에 언급된 직제 가운데 앞 부분의 세 직분(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은 대체로 한 지역에 얼마이지 않고 전체 교회를 상대로 사역했던 것에 비해 나머지 두 직분(목사, 교사)은 지역 교회에 국한된 범위에서 봉사했다.
- (2) 먼저 사도는 예수를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를 증거하는 자라야 했고 전교회에 그 영향력이 미쳤으나 점차 소멸해 갔다(행 14:4, 14; 고전 15:5; 갈 1:19).
- (3) 또한 구약의 경우처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은 초기에는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극심한 박해와 직권(職權)을 오용하는 잘못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교회에서 사라졌다(행 13:1; 고전 12:28).
- (4)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서 순회 전도자, 혹은 선교사적인 사람들로써 복음 전도자들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사도나 선지자 같은 권위나 위력은 가지지 못하여 신약 성경에 자주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무명으로 기쁜 소식을 전달한 자들이었다(딤후 4:5).
- (5) 목사와 교사들은 이교주의의 악영향에서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르침과 돌보는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로서 한 지역의 교회에서 영주(永住)한 교회 지도자들이었다(행 13:1; 고전 12:28; 딤후 1:11).
- (6) 이러한 교회의 직제들은 인간의 계획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친히 세우신 것으로서 이를 통해 주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 간다.

12. ⓐ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제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12-16절)

- Ⓐ (1) 먼저는 신체에 비유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교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강건하게 세워 봉사의 직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빌 2:17).
- (2) 또한 성도들이 믿음에 관한 지식과 신뢰가 성숙의 최고도인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돕는 데 있다(히 5:12-14).
- (3) 그리하여 교회가 불건전하고 거짓된 교리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속시켜 나가도록 한다.
- (4) 마지막으로 신체의 관절이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으면서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듯 교회 역시 그리스도와 밀접히 결속되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전 3:6, 7).
- (5) 이같이 신앙인의 지상 목표는 교회 안의 어떤 훌륭한 인물이거나 한 시대의 신조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길인데(골 2:6, 7; 3:10)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3. ⓐ 그리스도 없는 사람의 생활상은 어떠한가? (17-19절)

- Ⓐ (1) 바울이 묘사하는 이방인의 비참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헛된 것에 관심을 기울여 무익하고 공허한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이다.
- (2) 또한 그들의 사고와 지혜는 암흑 속에 갇혀 있는데 이것은 지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오는 내적 어두움 때문이다(5:8; 요 8:12).
- (3) 이 같은 영적 허무와 어두움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마침내 뿌리 잘린 식물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형편에 처하게 한다(요 6:53; 행 3:15; 딤후 1:1).
- (4)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려 관능적인 욕구에 탐닉하는 방종한 생활을 하게 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킬 정도로 타락하게 된다.
- (5)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세례를 받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14. ⓐ 이방인의 삶의 중요한 특색 가운데 '굳어짐'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17, 18절)

- Ⓐ (1) '굳어짐'(헬, 프로시스)이란 말은 원래 대리석보다도 더 굳은 돌을 말하는 <프로스>라

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 (2)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의학적 용어에도 쓰이는데, 관절 속에 생겨나서 관절의 원활한 동작을 마비시키는 통풍석(通風石)을 의미한다.
- (3) 그리하여 이 말은 너무 굳어지고 경화(硬化) 되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게 되었다.
- (4) 이런 면에서 죄는 인간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 범죄의 수치심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롬 1:32; 벧후 2:12).
- (5) 그러므로 신앙인은 죄에 대한 감각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언제나 양심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죄에 대항하는 칼날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성할 필요가 있다(살전 5:6; 딤후 4:5; 벧전 1:13).

15. **㉠** 바울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그들의 옛 생활에서 어떻게 탈피할 것을 권면하였는가? (20-24절)

- ㉠** (1)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모범이며 개인의 구주로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참된 삶을 살도록 교훈한다.
- (2)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옛 생활 방식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롬 13:12, 14; 갈 3:27).
- (3) 이러한 바울의 권고는 그들이 그리스도 없는 삶 속에 있을 때 물들어 있던 옛 죄악의 행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참된 자녀로서 근본적이고도 혁신적인 방향 전환을 할 것에 대한 촉구이다.
- (4) 신앙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 단 한번의 노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는 부단한 자기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한다(딤후 4:7).

16. **㉠**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주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22, 23절)

- ㉠** (1) 본절이 의미하는 바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옛 사람이 모든 거짓되고 추악한 옛 모습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Calvin).
- (2) 한편 본서신의 수신자들이 이미 회개하여 옛 생활에서 돌아선 사람들임을 감안할 때 거듭난 성도들이 그들의 옛 생활을 되풀이하려는 육적인 본성을 버리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Moffatt, Berkeley).
- (3) 그런 점에서 이를 종합한다면 인간의 부패한 욕심에 따라 살았던 과거의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의(義)와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형상(Image)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라는 가르침이다(고후 5:4; 골 3:9).
- (4) 참된 영적 변화를 갈망하는 성도는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17. **㉠** 바울은 거짓과 진실에 대해 어떻게 교훈하였는가? (25절)

- ㉠** (1) 그는 단순히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교훈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라고 권면했다.
- (2) 사실 우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왜곡시키고 은폐시키는 경우가 많다(시 58:3; 호 7:13).
- (3) 또한 성도가 진실을 말해야 할 이유로서 신체의 한 부분이 올바른 기능을 발휘함에 따라 다른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진리의 주이신 하나님을 중심하여 개

인이 진실함으로써 모든 지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계 3:14).

- (4) 그러므로 현대를 사는 성도들은 과거 많은 교회들이 사회의 불의와 잘못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여 도리어 세상의 죄를 동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거울삼아 진리의 파수군이요 진리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18. **㉠**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분노' (憤怒)는 어떤 것이라야 하는가? (26, 27절)

- ㉠** (1) 온유와 겸손이 미덕인 신앙인들에게도 올바른 의미의 분노, 즉 부정과 왜곡된 사실에 관한 정의로운 분노가 반드시 필요하다.
- (2) 실제로 성경에는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왕상 11:9; 왕하 17:18; 시 7:11)과 안식일에 병 고침을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막 3:5)와 특별히 예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드신 실례(요 2:13-17)가 있다.
- (3) 그러나 이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에서 나온 이기적인 분노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마음으로 타인의 영혼을 살인하게 되어 사단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성도는 마땅히 이를 버려야 한다.
- (4) 이처럼 자신의 불만과 불건전한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급히 표출하는 분냄은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신앙 생활에 큰 해가 된다. 반면에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사심 없는 의분(義憤)은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훌륭한 봉사이기도 하다.

19. **㉠** 바울은 노동의 참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였는가? (28절)

- ㉠** (1) 바울은 성도들이 일하는 그 주된 목적을 단순히 그 자신의 생계 유지나 재물 축재에 제한시키지 않고 궁핍한 이웃을 도와 주는 좀더 높은 차원에서의 노동관을 가르치고 있다.
- (2) 이는 당시의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물질적 형편이 어려운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옛 행습을 버리고 대신 정당한 노동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차원 높은 노동 윤리를 제시한 것이다.
- (3) 이러한 이상적인 노동관은 구약의 율법에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출 22:22; 신 14:29; 16:11)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행한 가르침과 실천(마 19:21; 눅 14:13; 요 13:29) 그리고 초대 교회의 모범과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행 2:44, 45; 4:32; 20:34; 살전 2:9).
- (4) 배금 사상이 만연된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건실한 경제 활동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뤄 가야겠다.

20. **㉠**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29, 30절)

- ㉠** (1) 믿는 자들이 이웃을 속이거나 저속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 근심을 끼치는 악행이다(행 5:4; 고전 3:16; 살전 5:19).
- (2)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 일체 중의 하나인 단순한 교리상의 위격(位格)이거나 위대한 능력을 발하는 신비스런 힘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안내자이자 지도자이기 때문이다(롬 8:26; 갈 5:17; 히 9:29).
- (3) 한편 성령은 성도의 일시적인 범죄로 떠나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구속의 확실한 보장으로 남아 계신다(참조, 요 14:16; 롬 8:23; 요일 3:2, 3).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웃에게 대한 언어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야만 이 성령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

21. **㉠** 성도들의 생활로부터 버려야 할 나쁜 성품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1절)

- ㉠** (1) 먼저 '악독'이다. 이것은 자신이 받은 손해나 모욕을 버리지 않고 점점 마음속에 품어

- 두어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려는 마음 상태이다.
- (2) 둘째로 ‘노함’이다. 이는 견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로서 급격한 감정 폭발이다. 세째로는 ‘분냄’이 있다. 이것은 악한 감정이 습관적으로 표현되고 만성화(慢性化)되어 자제할 수 없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 (3) 네째로 ‘떠드는 것’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훼방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이 사람에게 대해 사용될 때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 (4) 결국 이러한 종류의 성품이 옛 사람이 갖는 감정이므로 주 안에서 새로 지음 받은 성도는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후 5:17; 벧전 2:1).

본문해설

초대 교회의 사역자들

본장에는 초대 교회의 사역과 관련하여 여러 직분자들이 언급되어 있다(11절). 그러므로 이들 각 사역자들의 특성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사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의 택하심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참조, 본시리즈 11권 P. 155 연구 자료 ‘사도직에 대하여’).

2. 선지자

선지자도 사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그들은 초대 교회에서 설교와 예언을 병행하여 행하였다(행 11:28; 21:10, 11).

3. 전도자(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란 오늘날의 개척 선교사(pioneer missionary)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도를 위한 특수한 은사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 초대 교회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빌립도 전도자로 불리웠다(행 21:8).

4. 목사와 교사

본장에서 뜻하는바 ‘목사와 교사’란 말은 아마도 장로가 지니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을 의미하는 것 같다.

5. 장로(감독)

초대 교회에 있어서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다(참조, 딤후 5:17). 다스리는 장로는 회중에 의하여 피택된 후 장림을 받았다.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는 지역 교회의 요청을 받아 그곳에 부임한 후 다른 장로들의 인수를 받고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이외에도 초대 교회에선 오늘날과 같은 집사(deacon) 제도가 있었다(행 6:1-6; 딤후 3:8-13).

제 5 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단락구분 1-2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 **3-7**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을 지키라 / **8-14** 빛의 자녀답게 살라 / **15-17** 세월을 아끼라 / **18**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 **19-21** 잠든 성도의 생활 / **22-33**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의무

1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7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있는 자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됴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됴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4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실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니라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1. ㉠ 본장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바울은 본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

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 (2) 즉 그는 성도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 표준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웃과의 사랑, 개인의 언어 및 생활, 부부 관계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3)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즉시 완전한 인격과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줄로 알고 자신의 미흡함을 발견할 때면 구원 문제까지 들먹이며 실망하기 일췌이다. 그러나 성도의 거룩한 인격과 삶은 부단한 성화(聖化)의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4) 한편 바울이 권면한 거룩에의 몸부림은 한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이웃 사랑의 참된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1, 2절)

- ㉠** (1) 그것은 사랑의 최고 모범자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만약 하나님을 본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 사랑을 실현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 (自己義)에 불과하다.
- (2)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를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내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참조, 요일4:10).
- (3) 이러한 사실에 연유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행하신 희생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신다(참조, 레11:44; 마5:48; 눅6:36; 요13:34; 뱀전1:16).
- (4)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는 명령을 주시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보여 주신 참된 사랑이 성도들의 매일의 생활에서 재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참조, 요13:34).

3. **㉠** 바울은 성도의 순결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고 있는가? (3, 4절)

- ㉠** (1) 먼저 그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을 만큼 신실하기를 요구하였다.
- (2) 여기서 '음행' (헬, 포르네이아)이란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 타락을 지칭한다(참조, 마5:32; 고전5:1).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추한 행위와 문화 일반을 가리키며, '탐욕' (헬, 프레오벡시아)은 앞의 두 단어와 짝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성적인 쾌락을 한없이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인 '성도'라면 적어도 위와 같은 추악한 것들을 생각지도 말고 대화 속에 끼어 넣지도 말라고 하였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철저한 순결을 요구하신다(참조, 레11:45).
- (4) 또한 바울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누추하고', '어리석으며', '회롱'의 말을 삼가하라고 했다. 한편 '누추한' 말이란 야비하고 더러운 말을, '어리석은' 말이란 최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을 뜻한다. 그리고 '회롱'의 말은 변덕스럽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외설적(猥褻的)인 요소도 다분한 언어를 가리킨다.
- (5) 도리어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장려하고 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환경과 어떤 인격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상태인 줄 알고 불평과 추악한 언어를 삼가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여 자신의 순결 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서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4. **㉠** 죄를 경솔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가? (5, 6절)

- ㉠** (1) 바울은 육체적으로 짓는 어떠한 죄악도 영적 생활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다.

- (2) 이러한 사상적 흐름에는 육체적인 존재는 모두 무가치하고 악하며 영적인 것들은 언제나 선하다는 영지주의(Gnosticism)와 관련이 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해방을 주창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였다(참조, 고전15:32). 이러한 현상은 성을 예술화, 상품화하는 오늘날에도 발견할 수 있다.
- (3) 한편 이 같은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바울은 그의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탐욕하는 죄악을 계속적으로 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했다(참조, 고전6:9, 10; 갈5:20, 21).
- (4) 왜냐하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불건전한 탐닉은 곧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형태이든지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참조, 출20:4, 5).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성도'로서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신앙 생활은 결코 방종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근신과 절제여야 한다(빌1:27; 히6:11, 12).

5. **㉠** '불순종의 아들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6, 7절)

- ㉠** (1)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극심한 죄악 속에 파묻혀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버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참조, 2:2; 살후2:3; 히4:6).
- (2) 그러므로 음행이나 방탕의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기 보다는 세상의 안락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존재들이다. 문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패역한 자들이다(참조, 롬2:5-11).
- (3) 그런 점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오용하여 불신앙의 물결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4) 그러므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 자만하기 보다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1:4; 골1:22; 벧전1:15).

6. **㉠** 바울은 어떠한 상태를 가리켜 '빛'과 '어두움'이라고 각각 표현하였는가? (8절)

- ㉠** (1) 먼저 그리스도 없는 불신앙의 상태를 '어두움' 가운데 사는 생활로 보고 진리를 발견하여 새롭게 변화된 삶을 '빛'이라 했다.
- (2)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두움이 빛이 되는 것만큼 현저하고 극적인 전환임을 의미한다.
- (3)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2:1)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인격을 지닌 존재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지난날 그 성품과 기질과 감정마저도 철저히 죄악에 기초한 것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기초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 (4) 이렇게 변화된 인격은 어두움 속에 감추어진 존재가 아니라 빛의 특성처럼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 (5) 그러므로 새롭게 변화된 성도는 빛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삶이 순결하고 진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과 이웃을 개도(開導)해 나가야 한다(참조, 마5:15; 빌2:15).

7. **㉠** 빛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9절)

- ㉠** (1)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 (2) 여기서 '착함'은 일종의 관대한 정신을 말하고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이다.
- (3) 뿐만 아니라 '진실함'은 마음에 품은 도덕심이나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의 생활에

서 드러나는 선하고 거짓이 없는 행위이다.

- (4) 어떤 열매 혹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 그 나무의 진가(眞價)가 판명되듯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결과)를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빛의 자녀)냐 아니냐가 판가를 난다(마13:33; 약2:19).

8. **㉠**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했는가? (10절)

- ㉠** (1)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말이다.
- (2) 즉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보라는 말이다. 이러한 요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 생활을 만족해 하는 현대 신자들에게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 (3)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금속의 질(質)을 판명할 때 쓰이는 단어로서 '실증하다' 또는 '규명하다'는 의미가 있다.
- (4)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일치할 수 있도록 성도 자신의 삶의 하나하나를 면밀히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교훈이다. 더우기 이 말 속에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행했던 지난 일을 점검해 보라는 동시적인 요구가 내포되어 있다.
- (5) 또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과 즐거움을 드리는 일은 제일된 의무이면서도 그러한 행위는 사람의 적절한 판단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준다(마17:25; 18:12; 26:66; 계2:5).

9. **㉠** 어두움으로 상징되는 세상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11절)

- ㉠** (1) 빛의 자녀들은 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2) 도리어 그와 같은 일들이 악하며 부끄러운 사실임을 견책하고 폭로해야 한다. 즉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양심이 되어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
- (3)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된 일 자체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불신앙적인 사람들과의 교제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참조, 고전5:9-13).
- (4) 성도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는 매정하리만치 단호해야 하지만 그러한 악이 난무하는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된다. 이것이 성도가 지니는 딜레마이다. 성도들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세상 속에 거하면서 죄악과 싸워 가야 한다.
- (5) 다만 성도들은 불신자들과의 교제 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도피로 인하여 세상과의 절연 관계를 낳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나친 친밀함 때문에 자신을 죄악 속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0. **㉠** 빛은 죄악에 대해 어떤 일을 하는가? (13, 14절)

- ㉠** (1) 자연계에서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 주어 모든 사물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준다.
- (2) 이처럼 그리스도의 광명은 죄의 실체를 드러내 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두움 속에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한다.
- (3) 이와 관련하여 초대 교회의 세례식 찬송가의 한 귀절로 사용된 14절은 한 사람이 이교도의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 기독교의 빛된 생활로 들어가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탄생을 적절히 묘사한 문장이다(사60:1; 행12:6-11).
- (4)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모든 심령의 영혼을 치유하여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다.

11. ㉠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시간 선용에 대해 어떤 교훈을 주는가? (15, 16절)

- ㉠ (1) 그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 특별히 범죄와 부도덕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도덕적으로 긴장을 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가장 지혜로운가를 살피야 한다고 권면했다(15절).
- (3) 덧붙여서 '세월을' 아껴야 할 두드러진 이유로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태하게 살아갈 겨를이 없으며, 조금만 긴장을 풀어 버리면 부패한 세상의 악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 (4) 여기서 '세월'이란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끼라'는 말은 물건 등을 '사다', '속량하다'라는 뜻이다.
- (5)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구입하라', '기회를 애써 찾아 그에 따르는 어떤 회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6) 이처럼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틈이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며 그 주어진 생(生)이 다하는 순간까지 부지런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12. ㉠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바울의 근본 취지는 무엇인가? (17, 18절)

- ㉠ (1) 바울의 의도는 성도들이 지혜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 매일의 생활에서 주의 뜻을 위하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려면 성령의 내적 충만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세상적인 쾌락과 방탕함으로 채워지기 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는 자녀들이 되라는 권면이다(롬 12:1, 2).
- (3) 또한 바울은 슬취하므로 사람의 근심과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라는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했다.
- (4)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없어질 것을 찾는다면 그 목마름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성령께 자신의 전 삶을 의뢰해야 한다(요 4:10-14; 7:37-39).

13. ㉠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18절)

- ㉠ (1)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성령께 이양하여 성령께서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중생한 모든 사람에게 구속의 날까지 머물러 계시는 '성령의 내재'나 '성령의 인침'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참조, 1:13; 4:30; 요 3:5; 14:16; 롬 8:9; 고전 3:16).
- (2) 도리어 이것은 성령으로 이미 거듭난 새 사람의 믿음을 활력 있게 하고 봉사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신령한 경험이다(행 10:38; 11:24; 살전 1:5; 뱀전 4:11).
- (3) 한 개인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인격을 완전히 장악 하셔서 그 사고와 행동 등 생활 전반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껍에 물을 가득 붓듯이 성령의 능력의 몇 부분을 한 개인에게 주입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 (4) 더우기 성령 충만한 상태는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주의적인 종교적 경지이거나 열광적인 흥분이 아니다.
- (5) 그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생각이나 감정에 있어서 더욱 깊은 통찰력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갈 5:22, 23).
- (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힘있게 살려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순간마다 성령

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14. **㉠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19-21절)**

- ㉠** (1) 술취함의 결과가 방탕으로 드러나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 면에서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 (2) 먼저는 일상 생활의 모든 교제에서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기쁨과 평강 때문에 찬양과 찬미의 열매를 맺는다.
- (3) 또한 그러한 찬양은 어떤 경우에서도 끊임없는 감사를 수반하게 된다(행16:25; 빌4:4; 골3:16).
- (4)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신뢰와 돌봄을 통해 상호 복종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 (5)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증표(證標)를 환상이나 신유(神癒) 등에서만 찾으려 하기 보다 내면적인 신앙의 성숙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다.

15. **㉠ 19절에 거론된 찬양의 종류에 대해서 논하라.**

- ㉠** (1) 먼저 ‘시’(詩, psalms)는 구약 성경의 시편과 아울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일반을 말하고, ‘찬미’(hymns)는 초대 교회 때에 작성되기 시작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영광송(Doxology) 류를 가리킨다(시113:118; 막14:26).
- (2)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은 세속적인 작품과는 구별되어 성령의 영감에 의해 만들어진 찬송을 일컫는다.
- (3)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구속의 주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의 핵심이다.
- (4) 찬미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찬양은 어떤 환경에서도 쉬지 않는 신령하고 신성한 노래가 되어야 한다.

16. **㉠ 바울이 내세우는 부부 관계의 원칙은 무엇인가? (22-33절)**

- ㉠** (1) 첫째는,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각자의 권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두 관계에 있어서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 (2)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어느 한 편만의 일방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의 동등한 책임을 묻는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 (3) 둘째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의무’와 동등한 차원이란 점에서 그 원칙의 근거를 두고 있다.
- (4)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의존 그리고 복종이라는 깊은 영적 관계에서 그 원리를 추출(抽出)한 것이다.
- (5)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성립된 관계가 나와 동반자, 가정, 이웃, 사회에도 확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17. **㉠ 아내의 남편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22-24절)**

- ㉠** (1) 아내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섬김의 자세로 남편의 권위에 따르며 순종해야 한다.
- (2) 이 같은 아내의 복종은 성도의 주께 대한 순종과 교회의 그리스도께 향하는 신뢰와 복종의 관계에서 출발한다(골3:18).
- (3) 그렇다고 하여 남편의 권위나 의사(意思)가 곧 주의 명령이나 뜻과 동등하여 아내의 개인적인 의견이 전적으로 무시되거나 묵살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4) 도리어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주께 대한 복종의 태도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는 교훈이다.
- (5) 그런 점에서 볼 때 ‘주께 하듯 하라’는 명령을 오해하여 남편이 절대군주적인 위치로 아내에게 굴종을 요구한다면 이는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오용한 결과이다(고전11:3;

벧전 3:1, 7).

18. **㉠**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서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23절)

- ㉠** (1)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질서에서 여자의 지위를 남자의 권위 아래 두셨기 때문이다.
- (2) 즉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고전 11:3)이라는 상승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통솔의 권위에 순복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였다(고전 7:3).
- (3) 한편 남편은 아내의 머리일 뿐 아니라 자기 몸이신 교회의 구속자요 보호자이신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 (4) 물론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구속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셨듯이 남편도 아내에 대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 (5) 이처럼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가르침은 여자의 굴종을 명령하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탕을 둔 자발적인 순종이다(벧전 3:1-6).

19. **㉠**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교훈하는가? (25절)

- ㉠** (1)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헬, 아가페)은 전형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로서 비이기적이며 무조건적이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다.
- (2) 또한 본질의 '사랑하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나 아내를 계속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 (3) 그런데 남편들은 이 같은 사랑의 모범을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지고한 사랑에서 찾아야 한다.
- (4) 이기적 !겨 계약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혼 때문에 이혼율이 급증하여 가정 문제가 심각한 현대 사회에서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

20. **㉠**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의 모범으로서 바울이 내세우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가? (25-28절)

- ㉠** (1)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당신의 몸을 인간의 구속을 위해 값없이 드리신 자기 희생이다(롬 5:8; 갈 1:4; 딤후 2:14).
- (2) 둘째, 그러한 사랑으로 자신의 교회를 죄에서 건져 내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참조, 마 9:15; 계 21:2, 9).
- (3) 셋째,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지속적으로 돌보며 양육하시어 서로 간의 연합을 이루신다.
- (4) 하나님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의 차원만이 아닌 그리스도와 교회의 깊은 영적 차원으로의 성숙을 요구하신다(고전 6:15, 16).

21. **㉠** 궁극적으로 부부 관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22-33절)

- ㉠** (1)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롭게 연합하여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것처럼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다.
- (2) 이것은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약속의 언약으로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행되어야 한다(창 2:24).
- (3) 결국 부부 관계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성경은 일부 다처제(一夫多妻制), 잡혼(雜婚), 이혼 등 여타의 비적법한 결혼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창 24:4; 레 18:18; 민 26:59; 마 19:3-9).
-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정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신 사랑에 기초를 삼고 주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

아 한다.

22. ㉠ 바울이 언급한 ‘이 비밀’이란 무엇인가? (32, 33절)

- ㉠ (1) 본절에 언급된 비밀은 결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더불어 말한 내용이다.
- (2)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는 복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경륜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결혼한 자들은 부부간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4) 한편 로마 카톨릭은 본절을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 세크라멘툼(Sacramentum), 즉 성사(聖事) 부분이라고 번역한 것을 근거로 결혼을 성례(聖禮)의 하나로 지켜 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의식만이 성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교리이다(마26:26-29; 고전11:23-26).

화보자료

아데미(Artemis)신전의 복원도.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신전 중의 하나인데 남아 있는 유적을 참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완전한 복원도를 작성하였다.



에베소는 고린도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는 아니었으나 우상 숭배만큼은 극심한 도시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에베소인들은 아데미 여신을 열렬히 숭배하였는데 그들은 아데미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생각하였었다. 한편 이 같은 사회적 환경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5절).

제 6 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단락구분 1-3 부모를 공경하라 / 4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 5-8 상전에게 순종하라 / 9 종들에게 공정하게 대우하라 / 10-17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 / 18-20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 21-22 두기고에 관한 소개 / 23-24 축도

1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5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7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냐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니라
 9 상전들이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니라
 10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1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2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23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 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1. Q 본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A (1) 본장에서 바울은 부모와 자녀, 주인과 노예 사이의 윤리적인 규범을 말한 뒤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를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
 (2) 특별히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전투는 물리적이고 무력적인 세상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자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이며 우주적인 싸움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3)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혈육(血肉)에 속한 힘보다는 의(義)와 진리, 복음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가

르쳤다.

- (4) 이와 같이 성경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 대해 매우 사실적이고 심각한 어조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실제, 즉 문제의 심각성도 파악하지 못한 채 신앙의 가장자리만을 맴도는 데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1:6-12; 마4:3-11; 롬7:19-23; 갈5:17).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참조, 벧전5:8, 9).

2. ㉠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취할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가르쳤는가? (1-3절)

- ㉠ (1) 무엇보다 ‘순종하라’고 했다. 이것은 자녀들이 그의 부모의 말과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들으라’는 뜻이다.
- (2) 그런데 그 ‘순종’은 반드시 ‘주 안에서’의 순종이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요구는 부모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이의 갈등이 생길 경우를 염두해 둔 것 외에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 또한 바울은 이 명령을 구약에서 반복 인용함으로써 이 교훈이 신앙과는 동떨어진 세상적인 윤리가 아니라 율법의 약속과 일치하는 중요한 계명임을 가르치고 있다(참조, 출20:12; 레19:3).
- (4) 바울은 이 계명이 갖는 내용상의 중요성에 대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속이란 위의 계명을 실행하는 자가 받을 물질적인 부요와 육체적인 장수(長壽)를 가리킨다(출20:6; 신5:16). 그리고 ‘첫 계명’이란 성도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으뜸가는 계명이라는 뜻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다.
- (5) 현대 사회의 핵가족 제도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가정 파괴 현상을 낳아 결과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르치는 길로 치닫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은 성경으로부터 그 교훈을 본 삼아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를 재확립해야 할 것이다.

3. ㉠ 한편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한다고 말했는가? (4절)

- ㉠ (1) 부모의 권위를 무조건 내세우고 그의 자녀들을 함부로 다루어서 자녀들의 마음에 반항감과 불건전한 심리를 조성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 (2) 즉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나친 규율과 통제를 행사하거나 불필요한 과잉 보호와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3)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신앙 안에서 적절한 훈계와 징계, 혹은 보상 등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딤후2:25; 딤했2:12).
- (4)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주는 한 마디 충고와 격려 그리고 칭찬이 그들의 생애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크나큰 감화를 끼치는 경우를 볼 때 다음과 같은 루터(Luther)의 말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다.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러나 채찍 옆에는 사과를 두었다가 자녀들이 잘 했을 때에 그 사과를 주어라’.

4. ㉠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 당시의 풍조는 어떠했는가? (5-9절)

- ㉠ (1) 먼저 자유인들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는데 의사, 교사, 가정의 재정 관리자 혹은 황제의 편지를 대서하는 사람이나 고소 사건을 취급하는 사람조차도 노예로 취급하였다.
- (2) 또한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며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로마인들은 노예를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으로 분류하였고 나이 늙고 병든 노예는 고장나서 쓸모없는 도구로 취급하였다.
- (3) 심지어 도망치다 붙잡힌 노예는 물론이고 주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의 애완 동물을 죽이거나 혹은 수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도 노예는 가혹한 죽임을 당해야

했다.

(4) 이처럼 혹독한 배경에서 바울은 노예와 주인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5. **㉠** 바울이 노예 신분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5-8절)

- ㉠** (1) 그는 노예들이 현재의 사회 구조를 갱신하거나 그 신분의 해방을 위해 지배층에 대립하여 투쟁하라고 외치지 않았다.
- (2) 바울은 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노예들이 세상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권고하였다.
- (3) 여기서 그는 노예들에게 감시자의 눈앞에서만 일을 잘함으로써 인간을 기쁘게 하는 태도를 버리고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보상을 바라보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했다.
- (4) 이것은 노예들이 비록 억압받고 짐승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 향하는 봉사가 되도록 하라는 교훈이기도 하다.
- (5)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의 성도들이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와 노동 조건의 개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당한 대가를 받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거나 이를 갱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교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6. **㉠** 바울은 상전(上典)들이 노예에게 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9절)

- ㉠** (1) 첫째, 지배층, 즉 자기 밑에 고용인이나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도 노예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에 대해 신앙적 차원에서 살아야 할 동등한 원칙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 (2) 뿐만 아니라 주인된 사람은 아래 사람을 겁 주거나 위협하는 ‘공갈’(threatening)을 그칠 것을 명령하였다.
- (3) 이는 노예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강압적 방법을 동원하며 포학하게 종들을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동등한 인격자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4) 특히 이 땅 위의 상전들은 만인의 주인이시며 하늘에 계시는 최고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그분은 노예이든 상전이든 모든 불의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고 공정히 취급하시는 분이심을 명심해야 한다.
- (5) 이처럼 상전에 대한 명령은 노예에게 주는 교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두 신분에게 주는 명령은 결국 세상의 구조악을 핑계로 자신들의 신앙적 의무를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7. **㉠**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마귀를 퇴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는가? (10, 11절)

- ㉠** (1) 그는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훌륭한 무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듯 성도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힘입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2) 바울이 신앙인의 영전(靈戰)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 데에는 아마 그가 로마의 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자기를 감시하던 군인들의 모습을 지켜 본 데서 기인했을 것이다(빌 1:13).
- (3)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全身甲冑)를 입는 목적은 마귀의 꾀계(詭計), 즉 기회만 있으면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악한 계획이나 계략을 방어하기 위함이다(4:14; 고후 2:11; 11:3, 14; 살전 2:18).
- (4) 비진리와 불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은 자신의 신앙적 경험

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8. ㉠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적(敵)은 누구인가? (12, 13절)

- ㉠ (1)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으로 덧입은 사람이 아니라(고전 15:5; 갈 1:16)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이다(2:2; 3:10; 골 2:15).
- (2) 성경은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을 언제나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나, 피었다가 지는 풀의 꽃과 같이 비유하며, 이 같은 인간끼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화해하여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친다(참조, 롬 12:18; 약 4:14; 벧전 1:24).
- (3) 반면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영물로서 성도들이 대항하고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참조, 마 25:41; 요 6:70; 딤후 2:26).
- (4) 병법(兵法)에도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주위의 이웃이 아니라 바로 마귀 자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9. ㉠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 성도들이 갖춰야 할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4-17절)

- ㉠ (1)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있다. 허리띠가 군인의 동작을 기민하게 해주듯이 그리스도인이 지닌 진리는 성도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다급해 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능히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무기이다.
- (2) 두번째로, 가슴에 부착하는 '의(義)의 흉배'가 있다. 당시의 군인들은 가죽이나 구리로 만든 흉배를 가슴에 붙여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러나 성도의 방어 무기는 의(義), 즉 정직하고 진실한 생활이다(참조, 살전 5:8).
- (3) 세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다. 이는 신속한 기동력을 위한 장비로서 그리스도인이 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가지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사 52:7). 그런데 전쟁이라는 상황 설정이 '평안'이라는 말과는 모순되는 듯하지만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제시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임을 알 때 비로소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
- (4) 네번째로, '믿음의 방패'가 있다. 방패란 적의 불화살(火箭)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중무장한 무사가 지니고 있던 무기로서 성도에게 닥치는 유혹을 막는 길은 오로지 믿음 뿐임을 상징하고 있다. 믿음은 그 어떤 사단의 체계에도 능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참조, 빌 4:13).
- (5) 다섯번째로, '구원의 투구'가 있다. 투구가 전쟁에서 군인의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방어해 주듯이 우리의 구원은 비단 지나간 죄의 용서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구속을 확신케 한다(롬 8:31; 살전 5:8).
- (6) 여섯번째로, '성령의 검(劍)'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기서 성령의 검과 하나님 말씀을 동격으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실 '검'은 방어를 위한 무기인 동시에 공격에 필요한 무기이다.
- (7)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악의 세력과 싸워 가는 데 필요한 방어 무기가자 공격 무기이기도 하다(참조, 마 4:1-11). 그러므로 마귀의 체계를 방어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참조, 시 1편).
- (8) 이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 악한 세력들을 능히 이기고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라는 걸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새로 덧입어야 한다.

10. ㉠ 바울은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권고하는가? (18절)

- ㉠ (1)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한다. 즉 항상 아무 때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쉬

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다(참조, 눅 18:1; 살전 5:17). 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영전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 (2)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保惠師)로 오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라는 의미이다(롬 8:26).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다.
- (3) 더 나아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 전투 중의 군인이 방어 태세를 갖추기 위해 긴장감을 풀지 않고 있어야 하듯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경각심을 늘 지닌 채 정신차려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딤후 1:7).
- (4)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의뢰하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루고 있는 성도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호소하기 보다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참조, 시 14:6; 46:1).

11. ㉠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들 외에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했는가? (18-20절)

- ㉠ (1) 함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같이하는 동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 (2) 이것은 악과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는 길은 신앙인들끼리의 철저한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이다.
- (3) 한편 복음의 비밀을 맡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서신서 종결 부분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참조, 롬 15:30; 골 4:3).
- (4) 특히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신이 되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 (5) 사람이 어려움에 다치면 권력에 복종해 버리려는 유혹이 있는데 그럴수록 성도들은 서로 힘을 합쳐 이웃을 격려하여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갈 6:2; 살전 5:25; 살후 3:1, 22).

12. ㉠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를 어떠한 말로 묘사하였는가? (20절)

- ㉠ (1) 사도 바울은 지금의 형편을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使臣)이 되었다'고 피력하였다.
- (2) 사실 그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죄수의 신세가 되어 로마에 끌려와 그와 그를 지키는 간수의 발에 연결한 쇠사슬을 차고 있었다(참조, 행 28:20).
- (3) 그는 이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 구속된 죄수요 자유를 잃어버린 신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사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에 도착한 '대사'였다.
- (4) 즉 그는 온 인류의 주인이시며 모든 권력의 지배자이신 예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자유인이었다. 더우기 그는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마저 하나님께서 '당연히 할 말'인 '복음'을 자기를 통하여 로마에 전하게 하기 위한 은혜로운 경륜이었음을 찬양했다.
- (5)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건의 외부적인 면, 부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기 보다는 그 사건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은혜를 목도하게 된다. 이것이 중생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의 시각이다(참조, 고후 4:16-18).

13. ㉠ 바울은 본서신의 결론에 앞서 누구를 에베소 교회에 소개하였는가? (21, 22절)

- ㉠ (1) 성도들로부터 진실한 일군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두기고를 소개하였다.
- (2) 그는 아시아 교회의 대표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행 20:4) 본서신과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각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자였다(참조, 골 4:7-10; 몬 1:23).
- (3) 두기고는 교회를 방문하면서 바울의 상황을 알려 주기도 하고, 바울이 전해 주는 개인

적인 격려의 말도 성도들에게 전달하였다.

- (4) 이처럼 그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충성을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랑받을 만하고 그 인격이 진실했기 때문에 바울은 두기고를 높이 평가하여 교회 앞에 소개했던 것이다(딤후 4:12; 딤통 3:12). 우리들이 소속된 각자의 교회 안에서는 과연 몇 명의 '두기고'가 있는가?

14. **㉠** 바울은 어떤 축복의 말씀으로 본서신의 끝을 맺고 있는가? (23, 24절)

- ㉠** (1) 본서신을 마무리짓는 부분에 이르러 바울은 그의 성도들에게 '평안'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 늘 함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 (2)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신앙 요소로서 본서신의 서두의 인사말과 비슷한 기도 형식이다(1:2).
- (3) 여기서 '평안'이란 하나님과의 평안 등 모든 종류의 '평화'를 가리킨다. 또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서로 조화되어 편협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인간의 공력도 필요 없고 다만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만이 인정된다(참조, 갈 5:6).
- (4) 덧붙여 바울은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빌고 있는데 여기서 '변함없는 사랑'이란 '죽지 않는 사랑'(RSV), 혹은 썩지 아니할 사랑'이란 뜻을 담고 있다.
- (5)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에 답하는 인간의 사랑은 변함없이 보존되어야 하며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전 13:8). 이런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계속 임할 것이다.

본장의 요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